

미국, 수산부문 협정 나라별로 큰 차이

김 봉 태 / 정책동향연구실 연구원

<차 례>

- I. FTA 추진 현황
- II. 기 체결 FTA의 주요 내용
- III.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I. FTA 추진 현황

2004년 4월 현재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 6개국과의 FTA가 발효 중에 있고, 호주, 중남미 5개국, 모로코 등 8개국과 협상을 완료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5개국 등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FTA가 발효 중인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35.2%, 수출 비중은 41.1%에 달해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의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이 체결한 FTA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체결 대상국을 선정할 때 경제 개방 수준과 지리적 위치를 중요시한다. 특히 칠레와 싱가포르가 선정된 것은 이들 나라가 상당히 개방된 경제로서 남미, 아시아 지역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호주나 칠레의 예처럼 FTA 체결로 입게 될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품목을 지정하거나 관세를 길

게 유예하고 있다. 셋째, 호주의 이라크 전쟁 지지가 미국과의 FTA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에서 드러나듯이 미국은 FTA 체결에 정치적인 고려도 포함시킨다. 넷째, FTA 체결의 목적을 관세 인하보다는 다른 무역 쟁점을 해결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런 쟁점을 다루는 포괄적인 FTA를 선호한다.

아래에서는 미국이 체결한 FTA를 수산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FTA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과 최근에 협정을 체결한 호주와 올해부터 협정이 발효되는 칠레, 싱가포르가 그 대상이다. 각 FTA가 미국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는 하지만 FTA가 두 나라 사이 개별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I. 기 체결 FTA의 주요 내용

미국-호주 FTA

농산물에 대한 호주의 양보로 미국에 유리하게 타결

미국과 호주의 FTA는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여 지난 2월에 타결되었고, 올해 안에 두 나라 의회의 비준을 거쳐 2005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부담을 이유로 협상을 계속 지연시켰으나 호주가 설탕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18년으로 설정하는 양보를 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호주는 미국 수출 공산품의 99%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반면, 미국은 호주 수출 공산품의 97%에 대한 관세 철폐를 최대 2015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여 협상 내용이 미국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협상의 쟁점이었던 농산물의 경우에도 호주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모두 철폐하기로 하였지만, 미국은 수입 농산물의 66%에 대해서만 협정 발효 즉시 없애고, 나머지 중 9%는 4년 이내에 철폐를,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최대 18년까지 유예하였다. 그러나 그 밖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분야는 두 나라 시장이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FTA에서 주목할 사항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호주는 미국의 설탕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기대에 못 미쳐 대 미국 수출증대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농축산물 중 육류, 낙농품, 과일 및 견과류 등에서, 공산품 중 자동차, 금속, 광물, 종이, 화학제품 등에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화학제품 및 플라스틱, 건설장비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연간 2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공 수산물 중심으로 호주의 대 미국 수출 많아

수산부문이 두 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1〉 미국과 호주의 교역품목 비중(2003년)

단위 : 백만달러, %

호주 → 미국					미국 → 호주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1	02	육과, 식용설육	1,149	17.8	1	84	보일러·기계류	2,499	20.1
2	22	음료, 주류, 식초	627	9.7	2	88	항공기	2,162	17.4
3	98	특수분류품목	592	9.1	3	87	일반차량	1,245	10.0
4	87	일반차량	368	5.7	4	85	전기기기·TV·VTR	945	7.6
5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367	5.7	5	90	광학의류측정·검사정밀기기	846	6.8
18	03	어패류	88	1.4	40	16	육·어류 조제품	22	0.2
64	16	육·어류 조제품	5	0.1	68	03	어패류	5	0.0
		전체	6,468				전체	12,450	

자료 :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표-2〉 호주, 칠레, 싱가포르의 대 미국 어패류 수출 비중(2003년)

단위 : 천달러, %

순위	호주 → 미국			칠레 → 미국			싱가포르 → 미국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1	0306	65,930	74.9	0304	546,361	86.7	0304	26,332	56.0
2	0302	9,175	10.4	0302	35,823	5.7	0303	8,539	18.2
3	0304	8,148	9.3	0303	21,432	3.4	0301	7,517	16.0
4	0307	2,779	3.2	0305	16,107	2.6	0302	2,878	6.1
5	0303	1,198	1.4	0306	8,505	1.3	0306	1,608	3.4
합계		88,046			630,566			47,000	

자료 :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주 : 0301-황어, 0302-신선·냉장어류, 0303-냉동어류, 0304-어류의 필렛 및 기타 어육,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표-3〉 호주, 칠레, 싱가포르의 대 미국 어류 조제품 수출 비중(2003년)

단위 : 천달러, %

순위	호주 → 미국			칠레 → 미국			싱가포르 → 미국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HS	금액	비중
1	1605	785	81.8	1604	34,380	77.1	1604	1,578	74.3
2	1603	144	15.0	1605	26,516	22.9	1605	547	25.7
3	1604	31	3.3						
합계		959			34,380			2,125	

자료 :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주 : 1603-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액기스와 즙, 1604-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은 크지 않다. 지난해 수산물 무역수지는 호주가 약 6천만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가 비가공 수산물 수출이 많은 반면 미국은 가공 수산물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호주가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당수는 갑각류가 차지하고 있고, 신선·냉장어류, 어류의 필렛 및 기타 어육이 뒤를 잇고 있다 (<표-1>~<표-3> 참조).

고율 관세 철폐로 호주의 대 미국 다량어 수출 늘어날듯

FTA 체결로 호주의 수산물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모두 철폐되지만 이미 수산물에 대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상태여서 거의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미국이 수산물 수출에서 추가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세도 협정 발효 즉시 모두 철폐된다. 다만 대합조개 주스에 대해서만 4년 간 유예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는 비가공 어패류보다는 가공 조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 것이 많아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이 부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3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다량어(참치) 통조림이 무관세가 되면서 이 부문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칠레 FTA

미국, 칠레의 1차 상품 관세 최대 12년 유예

미국과 칠레의 FTA는 2000년 협상을 시작해 2002년 12월에 타결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정에 따라 칠레는 미국산 수입품목 중 87%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8년 후에는 95%, 12년 후부터는 전 품목에 대해 비관세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반면에 미국은 칠레산 수입 공산품 중 85%에 대해 관세를 즉시 없애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칠레산 수입 농산품에 대해서는 4년 이내에 75%, 12년 이내에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없어진다. 칠레 역시 호주처럼 1차 산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 농산품에 대한 유예 대상품목과 기간이 길게 설정되었다.

한편 칠레는 서비스 분야, 특히 금융 분야 개방 정도가 미국에 비해 낮았으나 이번 FTA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문직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칠레 수산물, 대 미국 수출품목 3위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수산물은 칠레의 대 미국 수출품목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가공품보다는 비가공품이 월등히 많고, 그 중에서도 어류의 필렛 및 기타 어육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대칠레 수산물 수출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표-2> ~ <표-4> 참조).

관세 유예품목 있으나 칠레의 대 미국 수산물 수출 늘어날듯

FTA 발효로 칠레가 일괄적으로 6%로 되어 있던 수산물 관세를 모두 철폐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비가공 수산물의 경우 발효 즉시 모두 철폐

<표-4>

미국과 칠레의 교역품목 비중(2003년)

단위 : 백만달러, %

칠레 → 미국					미국 → 칠레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1	08	과실·견과류	795	20.0	1	84	보일러·기계류	773	31.6
2	74	동과 그 제품	685	17.2	2	85	전기기기·TV·VTR	234	9.6
3	03	어패류	631	15.8	3	87	일반차량	210	8.6
4	44	목재·목탄	589	14.8	4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135	5.5
5	11	곡물의 분과 조분밀가루·전분	139	3.5	5	98	특수분류품목	114	4.6
15	16	육·어류 조제품	33	0.8	80	16	육·어류 조제품	0.6	0.0
		전체	3,979		89	03	어패류	0.3	0.0
							전체	2,443	

자료 :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하였지만, 가공 조제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HS(통일 상품분류체계) 코드 8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4년 유예품목이 4개, 10년 유예품목이 3개 설정되어 있다. 이 중 10년 유예품목에는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다량어 통조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유예품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과의 FTA 발효로 칠레산 수산물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많이 수출된 훈제 연어, 냉동게살은 각각 5%, 7.5%의 관세가 철폐되었고, 가공 조제품 중에서도 7.5~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이 10개(HS 코드 8단위 기준)에 달해 이들 품목에서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싱가포르 FTA

상품보다는 서비스가 쟁점

미국과 싱가포르의 FTA는 2000년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5월에 타결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양국 간 관세 인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그 동안 유일하게 관세를 부과해 온 맥주, 흑맥주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은 싱가포르

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92%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는 8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미국 모두 1차 상품의 비중이 낮고 다른 부문에서는 상당히 시장 자유화가 진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품 교역보다는 서비스 교역에 협상의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양국 간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는 싱가포르가 세계 4대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금융을 육성해 오면서 이 부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도 칠레의 경우처럼 미국과의 FTA 체결로 금융분야 개방 정도는 더 높아졌다.

수산물 교역 미미한 가운데 싱가포르가 수출 많아

두 나라 사이 수산물 교역은 전체 교역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싱가포르가 수산물 교역에서 4천만달러 정도의 흑자를 실현한 가운데 주로 비가공 어패류를 미국에 수출하였다. 품목별로는 어류의 필렛 및 기타 어육이 절반 가량 차지했고 냉동어류, 활어가 그 뒤를 이었다(<표-2>, <표-3>, <표-5> 참조).

<표-5> 미국과 싱가포르의 교역품목 비중(2003년)

단위 : 백만달러, %

싱가포르 → 미국					미국 → 싱가포르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1	84	보일러·기계류	7,489	52.4	1	84	보일러·기계류	3,908	26.2
2	85	전기기기·TV·VTR	2,217	15.5	2	85	전기기기·TV·VTR	3,015	20.2
3	30	의료용품	1,078	7.5	3	88	항공기	2,606	17.5

미국과 싱가포르의 교역품목 비중(2003년)(계속)

싱가포르 → 미국					미국 → 싱가포르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순위	HS	품목	금액	비중
4	98	특수분류품목	934	6.7	4	90	광학·의료·측정· 검사정밀기기	1,131	7.6
5	90	광학·의료·측정· 검사정밀기기	795	5.6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82	3.9
14	03	어패류	47	0.3	64	16	육·어류 조제품	5	0.0
39	16	육·어류 조제품	2	0.0	69	03	어패류	4	0.0
		전체	14,292	0.0			전체	14,889	

자료 :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미국, 상당수 수산물에 대해 관세 유예 설정

싱가포르의 수산물 관세는 FTA 발효와 무관하게 이미 폐지된 상태이다. 그런데 미국은 싱가포르와 FTA에서 가공 조제품을 중심으로 상당수 품목에 대해 관세 유예를 설정하고 있다. HS 코드 8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유예품목이 18개, 8년 유예품목이 12개, 10년 유예품목이 2개에 달한다. 유예 기간과 관세율은 비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4년 유예품목이 10% 미만, 8년 유예품목이 10~15%, 10년 유예품목이 20~35%에 달한다. 이러한 유예품목 대부분이 대 미국 수출량이 미미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한 것은 수산물 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된 싱가포르가 원재료를 수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지역 수산물이 우회적으로 수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싱가포르가 수산업 비중이 작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상당 폭 관세 유예가 이뤄짐에

따라 대 미국 수산물 수출이 늘어날 여지는 많지 않다.

III.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미국의 수산물시장 개방 폭 나라별로 달라

호주, 칠레, 싱가포르는 대 미국 수산물 수출국으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협정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이미 무관세화된 나라들이다. 따라서 이들 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이 받을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FTA로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산물 수출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들 3국과 각각 FTA를 맺으면서 수산물 관세 철폐 일정에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다. 호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품목이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사라지는 반면에, 싱가포르

르에 대해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칠레에 대해서는 호주와 싱가포르의 중간 수준이다. 미국이 싱가포르에 강한 유예 조치를 취한 것은 싱가포르를 통한 동남아시아 지역 수산물의 우회수입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미국이 주요 수입품인 농산물분야에서 큰 양보를 얻어 내기도 했고, 호주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치적인 우방국이라는 점이 수산물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 · 칠레와 경합관계인 일부품목 영향 예상

따라서 당장은 호주와 경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서 우리나라의 대 미국 수산물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호주의 수출 실적은 거의 미미했지만 고율의 관세가 철폐되는 다량어 가공품에서 우리나라가 일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의 경우도 그 동

안 수출이 많았던 냉동계살 품목이 관세가 철폐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표-6>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4월부터 우리나라와 칠레 간 FTA가 발효됐으므로 칠레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시장을 개척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싱가포르와의 FTA, 우회수입 대비해 관세 유예 설정 필요

미국, 싱가포르, 호주 중 현재 우리나라와 FTA 논의가 활발한 나라는 싱가포르다. 지난해 싱가포르와의 수산물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대략 410만달러 어치를 수출했고 670만달러 어치(관상어 제외)를 수입해 수산물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수산물에 대해 관세가 없으므로 FTA로 대 싱가포르 수산물 수출에 달라지는 조건은 없다. 결국 수산분야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관세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표-6>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일정

단위 : 천달러

HS	품목	대 미국 수출액(2003년)				각 FTA에 따른 미국의 관세 철폐 일정			
		한국	호주	칠레	싱가포르	현행 관세율	호주	칠레	싱가포르
03061420	냉동계살	214	0	2,770	0	7.5%	즉시	즉시	즉시
16041410	밀폐용기(기름처리)에 넣은 다량어 · 가다랑어	660	0	0	0	35%	즉시	10년 유예	10년 유예
16041430	밀폐용기(비기름처리)에 넣은 다량어 · 가다랑어	398	0	0	0	12.5%	즉시	10년 유예	8년 유예
16041940	피시 스틱(생선 튀김)	134	0	53	0	10%	즉시	즉시	8년 유예

자료 : 미국 국제무역 위원회, 미국-호주 · 칠레 · 싱가포르 각 FTA 협정문.

나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미국-싱가포르 FTA에서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싱가포르에 대해 관세 유예 품목을 많이 둔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동남아시아 지역 수산물이 우회수입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그럴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대 미국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관세 철폐의 근거로 활용

한편 미국과의 FTA 체결은 현재 스크린쿼터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경제대국인 미국의 중요성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FTA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을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 중 하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략 3억 4,800만달러를 수입했고 7천만달러를 수출하여 수산물분야에서 꽤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 칠레, 싱가포르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를 고려한다면 수산물분야에 대해 이들 3국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FTA가 교역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정이므로 협상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수산부만만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대 미국 수산물 무역의 역조 현상을 우리나라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를 두면서도 상당수 수산물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